광주시의회 임시회 쟁점은?

매월동 악취·어등산 관광단지 공정률 질타

市 "내달까지 불발탄 제거…2015년 전 사업 완료"

광주시의회는 12일 제192회 임시회를 열고 광주시 행정 전반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초선 의원인 허문수(민주·광산 2)·강은미(민노·서구 4) 의원이 나서 폐기물처리업체 악취 민원, 공군 전투비행장 이전사업,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서관 정책, 학교급식 관련 등 시 현안 사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악취 민원 대책 요구=서구 매월동의 폐기물처리업체인 명성환경이 가동하는 소각장과 슬러지 처리장에서 뿜어나오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명성환경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대기 배출 허용기준을 무려 240회나 초과했고, 특히 안질환과 폐렴,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폐쇄성 질환 등을 일으키는 황산화물과 염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고 있다"라며 "매월동 자동차 매매 1, 2, 3단지, 서부 농수산물 공판장과 건어물 유통단지 종사자와 시민이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 8월 하수슬러지 반입을 중단시키고 시설 보수를 완료한 이후 악취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설비가 노후화해 악취가 불시에 유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시의 지원 계획을 물었다. 강 의원은 "시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계획대로라면 올해 11월부터 시작되는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이 내년부터는 다시 중단되거나 그만큼의 예산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최우선 정책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운태 시장은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모두 하면 좋겠지만, 재정자립도가 광역시중 최하위인 만큼 2011년에 초등학교 3학년까지, 2012년 초등학교 전체, 2013년에 중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구체적 지원 규모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질타=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사업 초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둘러싼 환경단체와의 마찰,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올 10월 현재 공정률이 10%(불발탄 제거 94%, 기반시설공사 10%) 정도로 2012년까지 숙박시설을 제외한 관광단지가 조성될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11월 말이면 개발부지의 불발탄 제거가 완료된다"며 "불발탄 제거작업이 완료되면 2012년까지 관광단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특급호텔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또 광주시민 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해 어려운 지역경제에도 서둘러 프로 축구단을 창단하는 배경과 후원 기업 확보 방안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을 물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지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장엽 '대리조문'…민주당의 복잡한 속내

"조문 정도는 해야" vs "대북관계 장애" 당내 의견 분분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조문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복잡한 속내를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12일 오전 빈소에 손학규 대표의 대리인으로 양승조 비서실장을 보냈다.

양 비서실장의 '대리조문'이 끝난 뒤 오후에는 박지원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빈소를 방문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와 조영택, 전현희 원내대변인, 이윤석 원내 부대표가 동행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황 전 비서에 대한 조문이 국민 여론과 북한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라며 손 대표의 조문 참석 여부를 두고 고심하다 양 비서실장을 보내고 손학규 대표 등 당 차원의 공식적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대리조문'은 손 대표가 당내 인사들과 두루 접촉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온 결정으로 알려졌다. 당의 상징인 손 대표가 직접 조문을 하면 당내 비주류가 한나라당 출신인 손 대표의 정체성을 문제삼을 수 있으며 반면 조문에 전면 불참했을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황 전 비서가 분단의 희생자이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분인 만큼 조문 정도는 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칫 향후 대북 관계에서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당내에서 분분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0·27 재보선 후보 등록 첫날

서구청장 재선 3명 등록…공정선거 다짐

곡성군의원 보궐 1명…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오는 27일 치러지는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2일 민주당 김선옥, 비민주 야 4당 후보인 국민참여당 서대석, 무소속 김종식 후보 등 3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친 뒤 함께 공정선거를 다짐했다.

민주당 김선옥 후보는 후보 등록 후 광주공원 내 4·19 기념탑을 참배한 뒤 금호2동과 풍암동의 주민자치센터를 들러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나섰다. 김 후보는 13일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종식 무소속 후보는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쌍촌사회종합복지관을 찾아 노인 150여 명에게 점심 배식 자원봉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비민주 야 4당 후보인 서대석 후보는 이날 후보등록과 함께 모집에 들어간 '서대석 펀드'가 첫날 목표액 절반 가까이에 달성돼 목표액 1억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박금자 후보는 13일 오후 4시께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박금자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후보 등록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10·27 재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면서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비민주 후보인 김종식, 서대석 후보에게 '공명선거 지킴이' 출범을 제안했다.

한편, 곡성군의원 보궐선거는 후보 등록 첫날 무소속 정호범 후보만이 등록했으며, 민주당 조상래, 무소속 김지문, 조길훈, 고구주 후보 등은 13일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배아줄기세포 치료 美 첫 임상시험

미국의 생명공학기업 제론(Geron)은 10년의 연구와 실험 끝에 완성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척수부상 치료법을 척수부상 환자에게 실험하는 첫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AP통신 등이 11일(이하 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최종승인을 받은 이 임상시험은 전국 7개 척수부상 치료 전문병원에서 척수부상 발생 7~14일 된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그 첫 환자가 선정돼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있는 척수부상재활치료 병원인 셰퍼드 센터에서 지난 8일 치료가 시작됐다고 제론 사가 발표했다.

치료법은 배아줄기세포를 희소돌기아교세포가 되기 직전의 '전구세포'까지 분화시킨 배아줄기세포 유래 희소돌기아교전구세포를 환자의 척수부상 부위에 직접 주입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남-북 정상회담 수개월내 가능"

美 한반도 전문가 예상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11일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 North'에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 전망'이란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여러 변수가 있지만 수개월 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며 논리적 이유를 제시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후 나올 수 있는 남북관계 악화 책임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에 핵문제를 남북한 간 어젠다로 다룰 것을 요구하며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경제적 곤경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북한 국내정치에 간섭하지 않고,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대신 비핵화를 이행하겠다는 모호한 약속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 경제교류 확대로 '2012년 강성대국' 실현을 위한 단기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북한도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이해가 남한과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윤봉근, 위원·협의체 참여 재정비 지적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12일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광주시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협의체나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킨다는 학계의 지적이 많다"며 "제6대 의회의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위원회 참여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장은 "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무려 98개, 시 교육청은 49개에 달하고, 이 가운데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만 90여개에 이른다"며 "시의원이 위원회에 위촉되거나 특정 위원회에 장기간 연임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과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재홍 "광주여성재단 설립 서둘러야"

손재홍 광주시의원(민주·동구 2)은 12일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여성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광주 인구의 51%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 여성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지만, 광주시의 경우 지역 여성의 변화 욕구를 제때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현재 광주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는 재단법인이나 사업소 형태, 연구원 부서 형태의 연구기관을 두고 다양한 여성정책개발을 하고 있다"라며 "강운태 광주시장의 선거공약인 여성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